

그린·디지털 창업은 광주에서... '광주형 실리콘밸리' 뜬다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광주역 어떻게 바꾸나

한때 호남권 교통·물류·산업의 중심축이었다가 쇠락의 늪에 빠진 광주역이 '3대 메가 핵심사업'을 통해 화려한 재기를 꿈꾸고 있다. 21일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광주역 일대에서 진행해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역 재기 불씨 되살려낸 민선 7기=광주역은 2000년대 들어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고속철도(KTX)의 광주송정역 일원화 등이 맞물리면서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 광주역 일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KTX 송정역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광주역 일대는 사람 구경조차 하기 힘든 '슬럼화 현상'마저 겪게 된다. 광주역은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재기의 불씨를 되살려냈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잠재한 광주역 일원에 창업·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 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청년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인 '스테이션G'

초기창업자 육성 '스테이션G'

350억 들여 내년 상반기 착공

기업혁신센터·복합R&D센터

2025년까지 순차적 구축

복합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

건립, 광주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광주역사와 푸른길 공원 사이 철도 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푸른이음센터' 조성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총 2663억원(국비 250억, 시비 250억, 부처연계 2163억원)이 투입되며, 핵심사업으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육성하는 '스테이션G'는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너지 효과 극대화=광주역 일대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창업기업 성장(Scale-Up)지원 및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업혁신성장센터' ▲R&D 고도화 지원시설인 '복합R&D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플랫폼과 문화복합공간인 '사회문화혁신센터' ▲창업클러스터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혁신지구 연계형 공공주택' 등이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기업혁신성장센터'는 창업 5년에서 10년차 선배 기업의 성장육성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사업화 및 펀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기업공개 상장(IPO)과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중점 지원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합R&D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역내의 연구기관(분원)과 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시제품 제작 및 기술인 증진 등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문화혁신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공유 작업장 등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성장을 돕는다. '혁신지구 연계형 공공주택'은 LH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으로, 광주역 창업 클러스터에 종사하는 창업자 및 근로자, 특히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140호 규모로 공급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창업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광주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타운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TIPS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টে를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복합개발사업도 탄력=광주시는 광주역 구내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감도.

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해 확보된 공간 내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광주역 부지 20만㎡에 광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총 7493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교통·상업·산업·주거가 복합된 역세권개발 사업이 핵심이다. 도심권 교통 중심지에 있는 광주역 일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대형 백화점, 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현재 9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이 같은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수준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50년간 광주역으로 인해 단절된 광주 중심을 잇는 남북 간 소통 도로도 연결한다.

시는 이 밖에도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광주-대구 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이어주는 달빛나륙철도, 경전선(광주역-순천)전철화 사업과 접목해 광주역을 교통의 중심지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투입"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어졌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국 제약회사로부터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언 없이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 노력에 국한해서만 격려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규모 면에서 세계 다섯 번째이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치"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R&D 투자에는 '과학입국'(科學立

國)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감염병,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적 과제에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강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혁신 속도를 높여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감염병 문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문 대통령 지지율 39.5%...3주만에 반등 리얼미터 조사...국민의힘 31.6%·민주당 30.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39.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내린 57.7%였다. 긍정 평가의 경우 11월 말~12월 초 2주간 급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으나, 3주 연속 30%대다.

부산·울산·경남(9.0%p), 서울(3.9%p), 대전·세종·충청(3.2%p), 대구·경북(2.7%p) 등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지만 광주·전라(1.6%p)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하락세를 주도했던 40대(2.3%p), 진보층(6.4%p), 여성(4.4%p)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일부 회복됐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정리 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메시지 강도를 높이며 직접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6%로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0.2% 내린 30.6%였다. 3주 연속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8%p), 인천·경기(4.9%p), 광주·전라(1.9%p), 60대(4.5%p)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5.5%p), 대전·세종·충청(3.2%p), 여성(1.9%p), 20대(3.9%p), 40대(1.2%p), 진보층(3.1%p)에서 올랐다.

이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7.2%, 정의당 3.4%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